

새희망의 길



새희망의 길
VOL.32



현장24시

섬세한 소통으로 흐름을 조율하다
KT의 컨트를 타워, CS지원팀

기획특집

시장을 넘어 상생으로 진화하는 사회공헌 활동

KTTU 카툰

2/4분기 노사협의회 결과 추진사항

KTTU 레이더 1

2017 '우리가족 후사랑' 휴가 후기

사람은 휴식으로 충전됩니다

연일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폭염이 이어집니다.
 폭폭 찌는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고 맙니다.
 이런 때일수록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잘 쉬는 것인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뭔가 뜻깊고 보람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막연한 의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휴식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시간입니다.

빌게이츠는 혁신적인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가장 게으른 직원을 꼽았다고 합니다.
 촉박한 단순업무에서는 느긋한 태도가 나태해 보일지라도
 창의력을 요하는 일에서는 오히려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기억의 효율도 높습니다.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근로 시간, 그에 반해 낮은 생산성
 대한민국에 휴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잘 자고 잘 쉬어야 더욱 신명 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창의력과 집중력의 원천입니다.

C o n t e n t s

vol. 32



KTTU NEWS	04	KTTU NEWS
기획특집	08	시장을 넘어 상생으로 진화하는 사회공헌 활동
KTTU Mate	12	ktis 신입 5대 집행부 양권진 위원장
이슈 & 사회	14	노동자와 맞서는 佛 마크롱 목소리 높이는 韓 비정규직
현장 24시	16	섬세한 소통으로 흐름을 조율하다 KT의 컨트롤 타워, CS지원팀
KTTU 카툰	20	2017년 2분기 정기 중앙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KTTU 레이더 1	22	2017 '우리가족孝사랑' 휴가 후기
KTTU 레이더 2	24	손바닥에 갇힌 신종 증후군 노모포비아를 조심하라
KTTU 클로즈업	26	2017 조합원 여름휴가 후기
토닥토닥	28	음악이 주는 위로와 치유의 힘
길따라 멧따라	30	계획 없이 목적 없이 흘러가기 좋은 곳, 라오스
독자후기 및 퀴즈	34	조합원 독자 후기 및 퀴즈



K T T R A D E U N I O N N E W S

제9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개최 2017 단체교섭 요구(안) 등 심의·의결 확정



노동조합은 8월 28일(월) 11시 전국 12개 지방본부 위원장과 조직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산하조직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2017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논의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 제9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를 열고 2017년도 단체교섭 요구(안) 및 단협갱신(안)과 3/4분기 노사협의회 요구(안)를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17명의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임금·복지·제도 개선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임금 5.2% 인상을 포함한 7대 요구(안)를 최종적으로 가결했다.

임금 5.2% 인상을 포함한 7대 요구안은 현장 조합원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결과와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의 2017년도 단체교섭 방향 등 각종 자료등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의 염원을 담았다.

2017년 단체교섭 요구(안)

- 임금 분야
 1. 임금 인상 및 성과보로금 지급
 - 임금 5.2%(고과인상분 제외)
 - 성과보로금 300만원 지급
- 복지 분야
 1. 사내근로복지기금 500억 출연
 2. 대부제도 신설 및 개선
 - 대학학자금 무이자 대부제도 신설
 - 주택 매입/임차 대부금액 상향(1억)
 - 생활안정자금과 긴급가계지원은 통합(4천)
 - 대부상환 완료자, 상환중인 자는 추가기회 부여

- 3. 복지포인트 상향 및 차등폐지
 - 70만P 상향
 - 차등폐지
- 4. 기타 복지 지원 및 현실화
 - 기가 지니 서비스 지원 및 OTV/OTS 추가지원
 - 건강검진비 상향
 - 긴급출동 보전비 2.5만원 상향
 - 동계휴양소 운영
 - 상조 미지원자 가입기회 부여
 - 20만원 상당 일체복 지급
- 제도개선 분야
 1. 임금피크 대상자 사기진작책 마련
 - 정년 또는 희망퇴직 선택제
 - 임피 대상자만 그룹핑하여 인사평가
 - 년차 보상제(7일) 도입 등

※ 단체교섭 요구안, 단협 갱신안, 3/4분기 노사협의회 요구안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조

존경받는 1등 KT분과회의, 정년 퇴직자 '유급휴가' 활성화 및 케어 프로그램 등 논의



KT노동조합과 회사는 8월 23일(수) KT본사 16층 회의실에서 존경받는 1등 KT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정년퇴직자 특별휴가 활성화에 대해 보고받고 ▲정년퇴직예정자 CARE 운영 ▲2017. 9월 성과급 지급일정 조정 등을 협의했다.

노사는 먼저 정년퇴직자 '특별휴가' 활성화와 관련하여 사용현황과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는 2017년 2분기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특별휴가제도 인지도 제고를 통한 자율적 사용 확대를 위한 것으로 희망자에 한해 정년퇴직 3개월 전부터 퇴직 시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대상은 정년퇴직 잔여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직원 중 신청자에 한하며 9월 중 전사 공지할 계획이다.

노사는 이어 '정년퇴직예정자 CARE' 운영 방안과 관련, 임금피크 4년 차 대상자에 한해 반기별 시행하기로 했으며 2017년 11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자기진단과 컨설팅 등을 통해 자신에 맞는 제2의 인생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직성공률을 높이고 희망자에 한해 1:1 창업과 취업 컨설팅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추진방향이다.

이와 함께 1박 2일의 퇴직자 워크샵도 진행할 방침이다. 대상은 임금피크 4년차이며 2018년 1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계속해서 노사는 2017. 9월 성과급 지급일정 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지난 해는 추석 연휴 직전에 지급하였으나, 2017년 오는 9월 25일(월) 정기급여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1월과 9월 성과급은 각각 설, 추석 명절 직전 지급하기로 협의하여 시행 중이나, 10. 2일 △샌드위치데이를 통한 장기연휴와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을 고려,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이 배경이다.

2017년 현장작업 스마트폰 대·개체

- ▶ 대상 : 총 641대 (C직 : 426, Biz지원 : 215)
- ▶ 대·개체 기종 : 삼성 갤럭시 노트 FE (대형 화면 및 S펜기능)
- ▶ 약세서리 지급 : 5종
 - 목걸이, 케이스, 보호필름, 보조 배터리, 블루투스 이어폰
- ▶ 개인별 배송 : 2017년 8월 말 ~ 9월 초
 - 개통 매뉴얼 포함 배송 및 개인별 별도 공지/교육



2017년 단체협약 개정 전담반 가동 운영



KT노동조합은 8월 17일(목)부터 2017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협약 개정 전담반을 운영 했다.

이번 전담반 운영 목적은 사회 경제적 여건과 노동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적법성과 현실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따라서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 갱신 체결해야 한다.

(전담반 구성)

- 차완규 정책실장
- 전형집 정책1국장
- 박충범 정책2국장
- 박경윤 교육국장
- 홍정성 복지국장
- 유대중 지원국장

2017년도 하반기 신입 조합원 특강 실시



KT노동조합은 8월 16일(수) 오전 9시 KT본사 대강당에서 2017년도 하반기 신입 조합원 19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황성관 사무총장은 2017년도 하반기 신입 조합원들을 반기며, "KT노동조합은 10년 전만 해도 강성노조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정치적 행보보다는 조합원들은 물론 고객인 국민, 다문화가정까지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중심으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사무총장은 "노동조합의 문은 여러분의 입장을 대변하고 근로생활의 여러 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항상 열려 있으니 문의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고 노동조합에 연락해 달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참신한 발상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KT에 새 바람을 일으키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노동조합의 신입 조합원 특강은 KT단체협약 제37조에 의거 신규 조합원 교육 시 2시간 이상을 할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교육도 ▲노동조합의 역할과 연혁 등 동영상 시청 ▲KT노동조합 구성과 조직소개 ▲상조·웨딩지원(다운플랜)서비스 설명 ▲KT복지제도 안내 등으로 진행했다.

2017년 단체교섭 요구(안) 마련을 위한 조합원 온라인 설문조사 시행

KT노동조합은 2017년 단체교섭 승리와 교섭요구(안) 마련을 위한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했다.

- ▶ 설문기간 : 2017.08.07(월) ~ 08.14(월), 18:00
- ▶ 설문대상 : 전체 조합원 / 응답 : 2,540명
- ▶ 설문방법 : <http://www.kttu.or.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
- ▶ 질문개수 : 총 20개(객관식 19개, 주관식 1개)

직원 및 가족 대상 피부성형 의료행사 추진

KT노동조합에서는 임직원 및 자녀의 방학을 이용한 피부성형 의료행사를 추진한다. 조합원들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 ▶ 대상 : 임직원(계약직 포함) 및 가족
- ▶ 행사기간 : ~ 2017년 8월 말까지
- ▶ 행사문의 : 노동조합 복지국장(031-727-2824)
- ▶ 제휴병원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226(논현동) 나비성형외과

2017년 하반기 초등자녀 대상 화상영어 교육프로그램 지원대상 선정



KT노동조합과 회사는 2017년 하반기 초등자녀 화상영어 교육 프로그램 대상자 210명을 선정했다. 이번 추첨에는 노사 각 2명씩, 노동조합 유대 증 지원국장, 홍정성 복지국장과 회사측 인재경영실 김상근 인사담당, 경영지원실 박준천 경영지원담당이 참여했으며, 13개 기관별 박스추첨을 통해 진행했다.

초등자녀 화상영어 교육프로그램은 조합원 자녀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것이며, 교육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4, 5, 6학년 자녀를 둔 조합원과 직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총 210명의 학생은 오는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개월간 화상 영어교육이 진행되며, 지원하는 교육 콘텐츠는 Rhythm & Beat 교재 및 원어민 화상영어, Writing 첨삭(주 1회), Junior TOEIC Test(격월)가 제공된다.

2017년 하반기 초등자녀 화상영어 교육지원 대상자 및 예비 후보자 추첨 과정은 KBN을 통해서도 공개한다.

- ※ 최종 선정된 직원에게는 차후 개별 안내 진행
- ※ 선정자(4, 5, 6학년 각 70명) 명단과 예비 후보자 명단은 자료실 [문서/정책] 참조

2017년 하반기 리프레시 휴직 시행

장기근속 조합원 대상으로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 및 동기부여를 위해 2017년 하반기 리프레시 휴직을 시행했다.

▶ 대상 및 휴직기간

- 신청대상 : 전 직원 (상무보/임원/계약직 제외)
- 근속 10년 이상자 : 6개월 휴직
- 근속 20년 이상자 : 6개월 휴직 또는 1년 휴직 중 선택



▶ 신청 자격

- 최근 6개월 이상 정상 근무자(휴직, 교육파견 등으로 정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신청불가)
-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휴직복귀 예정일 기준)
-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징계말소기간 경과 또는 사면 시 신청가능

▶ 선발 절차

- 시행공고 → 신청서 제출 → 심의 → 최종 선발
- 휴직 희망자는 부서별 인사담당자에게 신청서 작성, 제출
- 부문/본부별 인사위원회 후 인사권자(부문장/지역본부장)가 최종 선발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 참고

노사문화 선진화분과 위원회 회의



KT노동조합과 회사는 7월 20일(목), 본사 분당 사옥에서 노사문화선진화분과 위원회 회의를 열어 ▲노사공동 회사가치창출 결과 ▲우리동네 노사孝사랑 상반기 결과 및 하반기 계획 ▲리본캠페인 시행결과 및 후속계획 등을 논의했다.

노사는 먼저 노사공동 회사가치창출 결과와 관련하여 △분당서울대 병원 전화예약실 사업 수주 △KT&G 전산실 이전 및 운영 수주 사업 △전남본부 노사 지역업체 사업수주 등 상반기의 주요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을 토의했다.

이어 총 10개 지역에서 시행한 △우리동네 노사孝사랑 잔치, △리본캠페인 시행결과 및 후속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리본 캠페인은 단 4주 만에 165% 초과 달성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이는 노사공동 시행에 따른 명분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홍보로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여 저조한 초기 참여율을 일시에 반등하는 등의 요인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노사는 절차를 거쳐 리본캠페인 매각 대금을 형편이 어려운 KT가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2017 단체교섭을 위한 의견조사 .. 두 차례에 걸쳐 교섭위원 전국파견



KT노동조합은 2017년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된 단체교섭 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17일(월)부터 현장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 ▶ 활동 : 현장 밀착형 간담회 실시
- ▶ 활동기간
 - 1차 : 2017. 7. 17(월) ~ 7.19(수)
 - 2차 : 2017. 7. 24(월) ~ 7.26(수)
- ▶ 주요내용
 - 단체교섭 요구안건, 현장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의견수렴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전담반과 함께 현장 조합원 및 조합간부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2017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최적의 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보유사택 개선TF 운영, “중장기 사택 운영방안 마련 통해 거주 조합원의 생활불편 해소”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1분기 노사협의회 후속 조치로 시행하는 사택 중장기적 개선에 대한 TF를 구성하여 사택거주 조합원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 목적
 - 노사 TF구성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현상진단 및 개선안 도출
 - 중장기 사택 마련을 통한 사택에 거주 중인 조합원의 생활상 불편 해소
- ▶ TF 구성 및 운영방향
 - 운영방향
 - 개선안 마련 시까지 관련 부서가 참여, 맡은 분야를 완결적으로 업무 수행
 - 정기·수시 회의를 통해 진행현황 공유 및 이슈해소 추진
 - TF구성 : 6명 (노사 각 3명)

- 조합측 : 지원국장, 복지국장, 정책1국장
- 회사측 : 재원기획담당, 그룹부동산담당, 경영지원담당
- 의사결정 체계 : 진행결과는 각 소속의 장에게 보고, 필요 시 노사 협의회 안건 상정

2017년 하계, 임직원 및 가족 안과/치과 의료행사 시행

조합원의 복지후생 사업의 목적으로 안과/치과 전문병원과 협약을 통해 하계기간 동안 의료행사를 추진한다.



- ▶ 접수기간 : 2017.07.03(월)~ 08.03(목), 18시까지
- ▶ 행사기간 : 접수 후 ~ 2017년 8월 31일(목)
- ▶ 신청대상 : 임직원 및 가족(계약직 포함)

UCC 봉사단, 고아원 봉사활동 .. 26일부터 환경개선 및 고엽제 후유장애 아동돌봄



상생의 노사 문화와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기업간 노사협의체인 UCC(단장 최장복) 글로벌 봉사단이 고엽제 후유 장애 아동들이 생활하는 베트남 호치민의 티엔푹 (Thien Phuoc : <http://www.thienphuoccharity.com/>)고아원 방문봉사 활동을 계속했다. 티엔푹 고아원은 전신마비 등 중증장애를 포함하여 고엽제 후유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동 70여 명이 사는 곳으로 약간의 정부 보조금과 대부분의 민간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봉사단은 먼저 벽면과 문에 시트지를 붙여 고아원 전체를 밝고 환하게 꾸미고, 아이들의 생활 공간에 부상 방지를 위한 압축 스티로폼 보드 붙이기 작업을 실시했다. 봉사단은 이어 드론, VR 고글을 통해 아이들과 놀아주고, 움직이기 어려워 제 손으로 식사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점심을 먹인 뒤 고아원 측에 아이들의 만화 시청을 위한 대형 TV와 의약품,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이날 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 수녀를 만난 최장복 봉사단장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이 장애와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밝고 해맑은 미소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피력한 뒤 “넉넉지 않은 환경에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수녀님과 동료 분들에게 마음 깊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시장을 넘어 상생으로 진화하는 사회공헌활동

추운 겨울 양로원을 찾아가 라면박스를 전달하며 기념사진을 찍는 기부활동은 이제 그만. 기부금 전달만으로 사회공헌활동을 다하던 시대가 저물고 각 기업만의 독특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의 시대가 도래했다. 홀로어르신들의 발이 되어주기 위해 승합차를 기증하는 자동차회사, 양로원을 돌며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해주는 에너지기업 그리고 바다 건너 사막화를 막기 위해 열심히 나무를 심는 항공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펼쳐지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의 새로운 화두는 사회양극화 해소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소외계층을 찾아 물적 기부를 하던 단순한 사회공헌활동에서 벗어나, 각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활동을 펼치는 방법론적 다양화와 함께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이론을 갖춘 형태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매년 발간하는 '중견기업 사회공헌 백서'를 살펴보면 2015년까지 각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활동분야는 사회복지가 87.5%로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2016년에는 장학(35.4%), 문화(25.2%), 환경(22.4%), 보건(17.7%) 등 사회공헌 활동이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활동 유형 또한 기부로 응답한 기업이 지난해 78.1%에서 72.1%로 다소 준 대신 임직원 자원봉사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등 다른 유형들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과거 소외계층에 대한 단순한 물적·인적지원 양상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폭넓게 확대해가고 있는 중이다. '기부와 모금'이라는 1차원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사회공헌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다.



개성 가득한 기업들의 다양한 활동

이렇듯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기업들은 규모와 업종의 차이 혹은 공사(公私)의 구분 없이 다양할 사회공헌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회사 전체가 전사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표방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지구촌 구석구석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마당발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생산적이고 전략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는 기업들은 소비자들로부터 도덕적인 이미지를 어필하며 건강한 기업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10여 전부터 '기프트카' 프로그램을 통해 돈이 없어 트럭을 사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포터 등 상용차를 기증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테두리가 불빛을 반사해 운전자나 우산을 쓴 어린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투명우산을 매년 10만여 개씩 제작해 전국의 초등학교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한화는 자사의 신성장동력인 태양광을 이용한 '해피선샤인' 캠페인을 통해 2011년부터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에 태양광에너지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사용하면 소비전력의 30~100%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포스코는 '포스코 스틸 빌리지' 사업으로 철강재를 활용한 주택 건립, 스틸빌터, 스틸브리지 등 지역 건축 구조물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포스코는 2009년부터 스틸 하우스 건축봉사를 통해 매년 화재 피해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LG전자는 2006년부터 시각장애인들에게 '책 읽어주는 휴대폰'을 무상으로 기증해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도서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휴대폰으로 LG상남도서관의 '책 읽어주는 도서관' 서비스에 접속하면 음성으로 제작한 도서를 다운받아 들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전액 무료다.

세계로 영역 넓히는 현대제철과 두산

현대제철은 2014년부터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미얀마 따웅비라이 지역 6개 마을에 커뮤니티센터, 식수저장탱크, 학교 화장실 등 실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고 벽화 그리기, 위생교육을 전파하고 있다. 두산은 사업의 특성을 활용해 2006년 캄보디아 정수설비를 지원했으며 2012년에는 베트남 안빈섬에 해수담수화 설비를 기증했다.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 삼성, SK

삼성그룹은 저소득층 중학생의 방과 후 학습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드림클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학생들과 대학생 강사를 연결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016 드림클래스 여름캠프'에 전국 6개 대학에서 대학생 강사 600여명, 중학생 1800여명이 참가해 합숙하며 함께 공부한 바 있다.

SK그룹이 지원하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은 3000여 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총 664명의 국내외 대학 박사 학위자를 배출했다. 재단이 배출한 인재들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전공과 진로 탐색 등을 돕는 드림렉처를 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을 통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연주자들이 연주에 몰두할 수 있도록 1993년부터 고악기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금호악기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각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은 매우 다양하다. 이는 기업의 포지션과도 관련이 깊는데 전략산업을 발굴해 안정기에 접어들 때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역시 기업분야에 똑같이 발맞추며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의 끊임없는 창의적 시도는 KT 노동조합의 상생 노사 문화와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기업간 노사협의체인 UCC 봉사단에서도 잘 나타난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고아원 환경개선

**비록 인생은 불공평하지만
‘관심과 나눔으로
불평등의 모순을 깨고
평화를 연습니다’**

2017 UCC 글로벌 봉사단 베트남 봉사활동

혹자는 말한다.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뭘 외국 사람까지 도와주나?” 이미 편견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있지만 그곳엔 기초 수급도, 무료의무교육도, 저소득가정 지원도 없기 때문이다’ 라던가 ‘겨우 1달러(약 1200원) 정도면 영양실조에 걸려 생사를 오가는 아이를 살릴 수 있고 월 3만원 정도면 한 아이를 먹이고 교육시킬 수 있는데 안 할 이유는 또 뭔가’ 라는 설명은 자칫 공허하다. 인간은 타인의 삶을 대상화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무지와 무례를 드러낼 때가 있다. 유기견, 유기묘를 돌보는 사람에게 “동물이 인간 보다 중요해요?” 라고 뜬금포를 던지고, 외국인 노동자 탓에 한국 일자리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세상이다. 편견과 냉소의 시선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제 돈과 노동력을 들여, 굳이 누가 하라고 등 떠밀지도 않은 ‘공유와 나눔’을 꾸준히 지속해나가는 것은, 결국 그것이 공동체가 지향하고 구현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UCC, 고엽제 후유 아이들에게 웃음 선물
한 발짝 내딛는 작은 용기와 실천이 커다란 희망으로**

일이든 여행으로든 개발도상국을 다니다 보면, 하루 두 끼 때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희망인지,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꿈마저 얼마나 큰 사치인지 가능조차 어려운 아이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의료와 교육의 부재, 공동체의 파괴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세상엔 너무도 많다. 아이들의 현실을 대면하는 것은 횡수가 쌓여도 무력감과 연민 탓에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정이다. '2017 UCC (Union Corporate Committee : 단장 최장복)봉사단'이 방문한 베트남 호치민의 티엔푹(Thien Phuoc : <http://www.thienphuoccharity.com/>) 고아원의 아이들은 그 중에서도 봉사단의 마음을 가장 먹먹하게 만든 장본인들이다. 티엔푹 고아원은 전신마비 등 중증장애를 포함하여 고엽제 후유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이들이 사는 곳으로 약간의 정부 보조금과 대부분의 민간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봉사단은 이 곳에서 봉사 기간 동안 고아원의 환경 개선작업을 시행하고, 활동이 어려운 아이들의 식사과정을 도왔다. 아이들의 사진은 차마 찍지 못했다. 태어나 보니 부모가 없고, 사지조차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진 아이들. 잘못을 저지른 것도, 선택을 한 것도 아닌 아이들에게 주어진 가없는 운명과 인생의 불공평함에 봉사단은 그저 숙연해질 뿐이었다.



**기꺼이, 언제나 내 손을 내어줄게요
냉소적 시선이 감동의 미소로**

봉사를 스펙 쌓기와 홍보수단으로 생각했던 사람도 더러 있긴 했던 모양이다. 처음 봉사단이 찾아갔을 때, 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 수녀님의 반응은 의외로 건조했다. “그냥 대충 저쪽이나 좀 치워주세요” 그간 일부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 탓인지, ‘어차피 시늬만 하다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나 진정성은 결국 통하지 않던가. 봉사단은 내내 아침 7시에 고아원을 찾아가 단 한시도 쉬지 않고 땀을 흘렸다. 한중막 같던 8월 호치민의 날씨, 선풍기 없이 일하면서도 고아원을 더 예쁘게, 더 편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전신마비로 평생 누워만 있는 아이들의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아 들고 마사지를 했고, 한 입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 아이들이 흘리는 침과 토사물을 손으로 쓱쓱 닦아가며 식사를 챙겼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삼일...마리아 수녀님은 봉사단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당신들이 외워서 정말 행복했어요.” 어디 수녀님뿐이라. 봉사단도 미약하나마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어 행복했고 감사했다. 그리고 돌아보게 되었다.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욕심과 바쁜 삶 속에서 아등바등 했는지를,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것은 궁극적으로 봉사를 통해 나를 바라보는 작업이기도 했다. 인간은 나약하고 미약하다, 개 개인의 힘으로는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불평등을 이해할 수도, 해소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적어도 방향은 알고 있다. 빈부의 불평등이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라면 무기력과 분노 대신 관심과 나눔의 지혜로 불평등의 모순을 깨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충돌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폼볼력 벽지 시공

‘감성 노동조합’ 조합원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난 5월 새롭게 출범한 ktis 집행부의 목표는 조합원을 위한 ‘감성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것. 업무 시간 내내 헤드셋을 낀 채 까다로운 고객상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조합원들의 고충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기 위해 ‘한발 더 다가가는 노동조합’의 밑그림을 힘차게 그려가고 있다.

ktis 신임 5대 집행부
양권진 위원장



“100번 콜센터 직원들은 대부분 20대 중반의 어린 후배들이예요. 입사하면서 미래의 꿈을 그리던 후배들이 좋지 못한 처우에 실망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선배인 제가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고민이 듭니다. 후배들에게 힘을 주지 못할 때 가장 마음이 아파요.”

서울 여의도 ktis 본사에서 만난 양권진 위원장의 첫마디는 후배들 걱정부터 시작한다.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100번 콜센터와 114상담 업무 직원들을 위해 양 위원장은 항상 그들의 노고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객상담 콜센터가 주 사업인 ktis가 생겨난 것은 지난 2001년 모기업인 KT로부터 한국인포서비스(주)라는 이름으로 분사하면서 부터다. 당시엔 콜센터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2009년 KT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세 곳의 콜센터를 합병인수하면서 ktis는 전문 고객상담 기업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 경기, 강원 등 세 본부를 합쳐 직원들이 2천 명이 넘었

어요. 유선업무를 담당하는 100번 서비스도 그때 합병되면서 전체 직원이 1만 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거대했지요. 하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114 콜센터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9천여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ktis는 주사업인 콜센터 외에도 광고서비스, KT통신유통사업,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세 환급사업(KT Tourist Reward) 그리고 ‘포켓타더’로 불리는 건강테마 플랫폼사업 등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조합원 한 명 한 명마다 정성을 가득

양권진 위원장이 노동조합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3년 입사 후 선배들의 권유로 조합원이 되면서부터다. 처음엔 평범한 조합원으로 시작했지만 선배들을 도와가며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를 갖추게 되었고 지난 2011년 3기 집행부 사무국장이 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접어든다.

“당시 여러 선배님들 중에 선대 집행부를 맡으셨던 김명동 전 위원장님이 생각납니다. 항상 조합원들을 편안히 대해주시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기적으로도 그분과 함께 했던 6년의 시간이 조합으로선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라 특별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ktis 집행부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지난 2009년이다. 여러 법인이 합병되면서 근무환경이나 노동조합에 대해 견해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만나 조화를 이루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그는 토로한다. “여러 회사가 섞이다보니 많은 사람들의 입장 차를 아우르며 ‘우리 식구’라는 생각을 이끌어내기가 힘들었어요. ktis는 본사가 있는 여의도를 비롯해 용산, 동작, 신설, 분당, 군포, 일산, 원주 등 8개 본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모두 1100여 명의 조합원들과 본부마다 대의원들이 각 한 명씩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직접 찾아가 얼굴 보고 이야기하며 공감할 수 있는 모든 조합원들을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조합원들에게 격려를

5대 집행부가 꾸려진 지 이제 막 3개월. 선거 직후부터 단체교섭을 치르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간부들이 아무리 바쁜 와중에 꼭 챙기는 것이 있으니 바로 조합원들의 경조사 방문이다. 양 위원장과 함께 5대 집행부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용철 사무국장도 조합원들과의 대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일정이 바빠서 경조사를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사후에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전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조합 명의로 온라인 입금에 그쳤지만 지금은 일일이 만나 축하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의 본질이 ‘사람’이듯 5대 집행부 모든 간부들이 다루는 가장 중요한 일 역시 사람 챙기기다. 조합원들 대부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나이 어린 감정노동자라는 사실은 젊은 노동운동가인 양권진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자연스레 다가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주기도 한다.

“제가 78년생이예요. KT그룹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에 비해 한참 나이가 어립니다(웃음). 선배님들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지만 주변의 도움과 조언들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양권진 위원장은 젊고 열정적인데다 따뜻한 가슴을 지닌 노동운동가가 틀림없다. 그런 그에게 KT 전체 조합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란 다름 아닌 ‘따뜻한 전화 한통화’였다.

“콜센터에 문의하는 수많은 고객들 중에선 KT조합원들도 많이 계세요. 감정노동에 지쳐있는 조합원들을 위해 통화가 끝난 후 ‘상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남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KT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정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tis 조합원들은 KSCO 평가에서 유/무선 통합 우수콜센터로 인증 받았으며, 한국표준협회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유/무선 동시 1위를 차지하며 우수한 업무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제 노동조합이 해야 할 것은 조합원들의 어깨를 덜어주는 일이다. ktis 5대 집행부가 그려갈 감성노동조합 프로젝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전체 조합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ISSUE & SOCIETY

노동시장 개혁의 급물살, 부활의 기회인가

경제·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노력은 최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쏟아지는 개혁방안들은 그러나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뚜렷한 방향성과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만 하는 난제다. 노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정부들과 궤를 달리하는 노동정책들은 과연 노동시장의 현안을 새롭게 진단하면서 어떤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까.



오만한 주피터 위기에 빠지나

서른아홉의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위기에 처한 프랑스를 구할 잔다르크로 불리며 스타로 군림했던 그의 인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월 당선될 때만해도 70%에 육박하는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그의 지지율은 반토막에 가까운 36%로 곤두박질쳤다. 프랑스 여론조사기관인 Ifop, 해리스 인터랙티브, 유가브(YouGov), 엘라베(Elabe) 등은 모두 마크롱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자가 적게는 36%에서 많게는 50%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지율 추락은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후 1995년 시라크 대통령의 경우를 빼고는 처음 있는 일이다. 취임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젊고 신선한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예산안 감축, 노동계를 분열시키는 불안한 노동정책 그리고 군부와의 미숙한 알력 싸움을 보이며 '영파워'로 통하던 그의 이미지는 급기야 '미숙한 철부지'로 묘사되고 있는 형편이다.

프랑스 언론은 이러한 마크롱을 두고 '주피터'라 부르며 조롱하고 시작했다. 보잘 것 없는 출신배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낡은 정치판을 뒤엎고 권좌에 오른 그가 겸손하기는 커녕 최고의 신처럼 우뚝대며 거만해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또 하나의 큰 위기를 맞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노동계의 총파업이다. 그것은 지난 8월 3일 프랑스 의회는 노동개혁 입법안이 신속히 발효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마크롱 대통령에게 위임하면서부터 시작했다. 노동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내세운 핵심 정책으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규제 완화 등을 통해 10%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추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실 마크롱이 그랬듯 프랑스의 역대 대통령들은 친기업적 노동정책을 꾸준히 시도해왔다.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주당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했고,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노동자와 기업의 퇴직 협상절차를 간소화시켰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도 기업의 수익이 줄면 해고를 용이하게 해주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 반노동정책을 펼쳐왔다. 그동안 정부에서 줄곧 시장 중심적 노동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시장 환경이 어렵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프랑스 노동법은 여전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프랑스 국민들은 노동개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마크롱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취임 이후 보여준 그의 독불장군식 정치 스타일에 거부감을 느낀 국민들은 의회의 노동법 개정안 통과를 기점으로 정부에 상대로 큰 반발을 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마크롱의 노동정책에 대해 우려해왔던 프랑스 노동계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은 9월 12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필리프 마르티네즈 CGT 위원장은 "대통령은 과반 의석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조는 그도 뛰어넘을 수 없는 바리케이트"라며 결전의 의지를 되새겼다. 9월 12일,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행정부의 앞날이 달려있다.

9년 동안 숨죽여온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광장으로

"식당 아주머니는 그저 밥하는 동네 아주머니일 뿐 무슨 정규직이 될 필요가 있나요."

지난 6월 어느 국회의원의 철없는 막말은 영양사·조리사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총파업의 현장으로 나서게 한 계기가 됐다. 그동안 정치적, 사회적으로 제기된 이슈에 밀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남모르는 땀과 눈물을 흘려온 이들의 이번 집단행동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급기야 6월 30일 광화문광장에는 급식 조리사, 경비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 5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집회이자 비정규직 주도의 첫 총파업이 진행됐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는 '6.30사회적 총파업대회'에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50여개가 연대했고 전국적으로는 약 35개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으로 인해 약간의 급식차질이 있긴 했으나 여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총파업이 시작되기 전 28일 서울 온수초등학교는 학교장 명의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통신문에는 "사회적 총파업에 우리 학교 일부 교육실무사들께서 노동자의 권리이자 국민 된 사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려고 참여한다"며 "불편"이라 생각하지 말고 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임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한다는 "지지와 배려"의 내용이 담겨있다. 학부모들은 이에 교육을 지원하는 주체인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이 어렵다는 현실에 공감하면서, SNS를 통해 기성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의지를 보이며 노정 간 소통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는 상황에서, 정부를 재촉해 주요 현안에서 기선을 잡겠다는 의지와 달리 다소 성급해 보인다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고용안정과 최저시급 인상 등 취지는 공감하더라도 압박하듯 파업을 진행하는 모습은 자칫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파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제 노동계는 총파업의 목표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한다.

노조의 지지를 받았던 새 정부가 시험대에 오른 것과 마찬가지로, 명분 없는 투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정권교체의 주역이라는 자만심에 취해 실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비칠 뿐이다. 노동계는 다양한 대화 채널을 균형 있게 가동해야 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날카롭게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왼쪽부터 김호준, 김기욱, 김광업, 임향수, 장희경, 김수정

섬세한 소통으로 흐름을 조율하다 KT의 컨트롤 타워, CS지원팀

축구에 비유하자면, CS지원팀은 미드필더다. 주공격수가 볼을 넣게끔 도와주는 중간역할. 전화 목소리 하나로 회사 이미지를 높일 수도 실추시킬 수도 있는, 꼼꼼함과 본능적인 소통 감각이 생명인 KT의 대표 목소리다. 그만큼 팀원 개개인은 자신만의 노하우로 무장한 현장 소통의 달인들. KT라는 국민 기업의 이미지가 업무에 득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는 그들의 말 속에는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겠다는 자신감과 요동치지 않는 자부심이 깔려있다. 따뜻하고 지략 번뜩이는 그들을 만났다.

- 충남지방본부 충남고객본부지부 CS담당 CS지원부 CS지원팀



꼼꼼함이 요구되는 CS지원 업무

충남고객본부 CS(Customer Service)지원팀에는 총 37명이 일한다. 1팀 7명, 2, 3팀 각 15명씩 세 개로 나누어진 팀은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충남 지역 전체의 상품 개통과 AS 현장지원 및 고객 불만처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마주한 임향수, 김호준, 장희경, 김수정, 김기욱, 김광업 조합원 역시 그러했다.

“개통, AS 현장지원과 VOC 클레임처리, 그리고 AS 무출동 작업 및 DB관리, VOC 감소활동 등이 주 업무예요. 그 외 CSCT OSS 운용관리와 인프라 정확도 DB정비, MDM 건물 위치코드 승인 관리 등을 수행하죠. 저희 업무는 구성원들이 하나라도 놓칠 경우 후유증이 세계 옵니다. 덕분에 인성들이 다 꼼꼼해요. 그래야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점점 부서 근무만 30년째라는 김호준 조합원은 CS지원팀을 거치지 않고는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고장과 장애 정보를 입력하고 현장의 수리시간이 지연되면 고객이 답답하지 않게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하루 일과는 늘 팍 조여져 있다.

고객이 요구하는 시간에 즉시 상품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맞추고, 넉넉하지 않은 현장 개통 인력을 감안해 고객 번심에 따른 일정을 조정해 세팅하는 것은 필수다. 또 출동하지 않아도 될 고장인데 현장직원이 흑시라도 갈 수 있으니 고장 할당대기상태 시스템을 활용해 무출동 처리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시스템을 통해 수배대기, 할당대기 등 작업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늘 감시해야 한다.

CS지원에 있어서는 전국 최고로 평가받는다는 업무 21년차의 장희경 조합원은 “영업전선에 있는 건물 정보와 영업데이터를 정확하게 맞추는 DB정비는 개통흐름의 오류를 막기 위해 완벽하게 정비해야”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녹록하지 않은 현장조율 과정

오랜 경험으로 웬만한 상황에도 능수능란한 이들이지만, 고객과 현장을 조율해야하는 과정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22년간 별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일을 받아들인 것 같으며 무던한 업무 생활을 피력하는 김수정 조합원도 요즘 고객들을 상대하는 어려움을 토로한다.

“과거에도 지금처럼 민원이 많았어요. 하지만 옛 고객들은 수고를 한 반면 지금은 무조건 들으려고도 않고 ‘당장 나오라’고 소리 지르는 불만 고객이 많아요. 특히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유선에 의지하니 고장 나면 난리가 나죠.”

돌고 돌아 다시 친정으로 왔다는 28년차 늦깎이의 김기욱 조합원은 현장이 편해야 팀도 편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요즘 고객들은 지능적이어서 고장 나면 단순 요구가 아니라 재빨리 와서 처리하도록 길들입니다. 때문에 현장에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임합니다.”

입사 21년차로 CS지원 업무 3년째라는 팀의 막내 김광업 조합원은 처음 업무를 배울 당시는 애를 먹었다.

“이 업무는 실시간 현장에서 원하는 바를 혼자 즉시 캐치해야 합니다. 현장직원은 하루 일 소화하기도 힘든데 카드기가 고장 난 가게에서는 ‘당장 오라’ 소리치니 그런 조율 과정이 힘든 게 사실이에요. 지금은 조직도 가족적이고 모든 게 만족스럽습니다.”

임향수 조합원도 불만 고객들의 호된 전화세례에 익숙하긴 마찬가지다.

“고객들은 당장 오지 않으면 ‘해지하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 ‘회장님 번호 말해라’는 등 소리치고 불만을 터뜨리죠. 그러면 끝까지 ‘죄송하다’고 하고 ‘현장 기사님 마치는 대로 바로 가겠다’고 설득해요.”

김기욱 조합원은 “고객들도 각자 성향이 있다”고 했다. 특히 자영업자나 배달전화가 일상인 중화요리집 등 KT의 유선 고객일수록 목소리가 유독 큰데, 가끔은 ‘고객들도 조금은 이해해줬으면...’ 싶다가도 이내 ‘당연하다’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CS지원팀은 오히려 좋은 조건에서 일하는 것이라는 말로 김오준 조합원은 배려와 위로를 건넨다.

“감정노동자인 우리는 한건 처리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긴급 건 수배는 말할 것도 없죠. ‘주식 날아가면 물어내라’고까지 하니 그런 경우를 원천 차단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미칠 노릇이죠. 하지만 현장의 고충은 더 심하다는 것을 압니다. 현장 지원도 나가봤지만 정말 힘들게들 일해요. 그래서 현장이 원하는 건 가능하면 다 들어줘야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KT’라는 이름의 득 혹은 실

업무 특성상 그날의 오더를 확인하고 현장 분배 확인도 해야 하기에 출근은 8시까지 해야한다. 예약건수가 맞춰졌는지 점검하라 현장 기사 대기 확인하라, 이것저것 훑어보고 일하다 보면 점심도 교대근무. 하루 받는 콜 수만 평균 6~70건에 혹여 이번 장마 때처럼 낙뢰와 폭우가 이어진 경우 평소보다 독촉 콜은 많아진다. 연중 휴일근무인데다, 근무 후 일주일 안에 대체휴무일을 받아야 하는 지금 조건에서는 좀 더 탄력적인 휴무를 결정할 수만 있어도 좋겠다는 게 모두의 바람이다.

이 모든 고충이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CS지원팀은 그러나 자신들이 개통 AS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책임을 절감한다. 화통한 성격으로 현장 조합원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많다는 김수정 조합원은 무엇보다 일에 있어서 유대를 강조한다.



자존심은 버리고 경쟁력은 높이고

냉정한 고객들을 상대로 타사 이탈을 방어하거나 긴급 건을 중간 수배해서 고객에서 발 빠른 서비스 제공 후 듣게 되는 VOC칭찬 글들은 회사에 대한 기여와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원동력이다.

내·외부 고객을 상대하는 각 사례들을 습득하다보면 자연히 저마다의 노하우도 쌓인다. 팀은 매주 수요일 본인만이 알고 있는 OSS프로그램 개통처리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예쁜 목소리와 상냥한 말투로 동료들 칭찬이 자자한 임향수 조합원은 기다리고 들어주는 게 문제해결의 실마리다.

“일단 불만 고객은 ‘불편하시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수궁하면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준 후, ‘책임지겠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설득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수그러들죠.”

장희경 조합원은 빠른 순간 판단력이 자신만의 노하우이자 장점이다.

“고객과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할 지 오류 유형을 대하면 바로바로 판단이 서죠. 현장직원이 화가 났을 때는 빨리 풀어야 하고요. 경험이 노하우인 셈이죠.”

꼼꼼하기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김호준 조합원은 복잡 다변한 현장 콜에 신속히 대응해 현장에서 답답하지 않도록 필요한 루트를 속속 엑셀로 작업한다고. 또 클레임의 경중을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메모해 문제 유발에 대비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은 알람으로 표시해 둔다.

“나만 잘하겠다는 자존심 따위는 필요 없어요. 노하우는 함께 나눕니다. 업무가 꼼꼼한 만큼 팀의 경쟁력과 이미지도 높아지니까요.”

CS지원팀은 이 역할이 없다면 업무가 돌아가지 않을 만큼 주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작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이 드는 게 구성원들의 솔직한 심정. 장희경 조합원은 그 섭섭한 속내를 ‘CS CT는 변방’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하지만, 현장이 있는 한 그리고 KT가 존재하는 한 CS지원팀도 지속될 것을 구성원 모두는 의심치 않는다. 때문에 모두는 앞으로도 건강한 행복을 추구하는 KT의 컨트롤 타워로 CS지원팀이 발전하기를 오늘도 소망한다.

임향수 조합원이 웃으며 건넨 마지막 한마디처럼 CS지원팀은 바로 “막힌 곳을 뚫어주는 소화제”이니까.

“고객들은 KT라는 기업에 기본적으로 바라는 게 있어서 충족을 안 시켜주면 ‘배불렀냐’고도 합니다. 기대를 한다는 건 어쨌든 좋은 거죠. CS지원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이 자리가 있어야 현장도 편해요. 일단 고객과 현장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고, 현장마다 일하는 스타일도 다 달라서 캐치를 잘 해야 하죠. 긴급장애가 났을 때 운용팀 선로 등이 신속하게 움직여야지 우리만 잘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민원고객이라도 친근하게 대해야 하고요.”

목소리만 들으면 현장의 성향을 단번에 파악하는 베테랑들인지라 이제는 최대한 현장을 편하게 풀어주고 소통하며 처리하는 게 최선의 결과를 만든다는 데에 공감한다.

“현장 담당자를 국사별로 만나서 소주잔 기울이며 마음 편하게 풀어주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개통하며 필요로 할 때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막내인 김광업 조합원 또한 업무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는 일찌감치 파악한 바다.



정기 중앙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2017년 2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KT 노조가 하는 일 궁금해요~.

당연히 조합원들을 위해 열일하고 있죠. ㅎㅎ 이번 의결사항 한 번 들어 보실래요?

KTU

1 임금피크제 대상자 사기 UP

세월 빠르다. 나도 어느새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되었네...

장기공로 생활임소

수련관 우선배정 혜택을 드립니다. 임금피크 대상자 중 4년차 적용 직원포함 4인 가족까지 3일 이내 일비 + 교통비+식비를 지원합니다.

2017년 9월부터라니 가족들과 가 봐야겠군.^^

개인 차량을 쓰는데 혜택이 좀 더 없을까?

기름 넣고 가실게요~. 이제부터는 리터당 본인 보유 등록된 차량 기준으로 표준연비를 적용해 드려요!

※ 기동장비 운영매뉴얼 개정 이후부터 시행

퇴직 care 교육 프로그램 운영(만 59세 정년퇴직 예정자 대상)

① 전직지원 교육 ② 퇴직자 워크샵

창업으로 새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성공하십쇼, 선배님!

퇴직 전 3개월 유급휴가 제공

삶을 돌아보며 인생 3모작을 위해 재충전하는 시간!

희망자에 한해, 3개월의 기간을 나눠서 사용 가능

2 장기휴직자 복직후 잔여연차 이월제도 도입

남은 연차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연차

고민남

하반기 복직 직원 중 희망자에 한해 복직년도 발생연차의 50%까지 다음해 상반기로 이월 허용

와우~ 막 쌓인다.

So Happy

3 현장근무자 블루투스 헤드셋 지급

저거 말야, 우리 같은 작업자에게 유용하겠어.

그러네~.

CM팀 선로업무 근무자 지역 네트워크 현장 근무자 (LG TONE + HBS-500) 9월 중 지급

그래서~~ 지원합니다!!

최고급 블루투스 헤드셋 나갑니다.

드템!!

4 자가차량 연비 조정

업무용 차량 미 지원으로 차를 등록해 업무를 하는 경우
※ 기존 표준연비 13.5km/ℓ : 1,500cc AT 기준

KTU

KT 노조, 정말 열일하시네요. 앞으로도 모두를 위해 애써 주세요용~!!

그럼요~. 앞으로도 주욱 여러분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KTU

KTU

“장모님은 아이처럼 기뻐하고, 사춘기 아들은 마음의 문 열었죠!”

2017 ‘우리가족 효사랑’ 휴가 후기

● 호남네트워크운용본부 전북유선운용센터지부 **고경우 조합원**

가족이 함께 한 첫 해외여행이었다. 달뜨고 기대했던 만큼 일정은 즐거웠고, 가족의 사랑은 배가 되어 돌아왔다. 효도를 통한 가족사랑 실천을 위해 마련된 ‘우리가족 효사랑’ 프로그램은 고경우 조합원에게 일상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는데, 태국의 열기만큼이나 후끈했던 이 가족의 조금은 특별했던 여행담을 들어보았다.

7월부터 9월까지 총 670명 참가

“세월이 참 빠르네요.” 올해로 업무 24년 차를 맞는다는 고경우 조합원의 첫마디에서 소회가 흠뻑 묻어났다.

고객선로시설업무를 시작으로 전자교환기 TDX시리즈와 전송장비, 그룹인력개발원에서 국내외과정 설계 등을 두루 거친 그는, 현재 인터넷 지역 백본 노드 운영 및 기가오피스서비스 장비 운영을 기반으로 B2B 수주 지원을 위한 기업고객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열심히 달려온 시간 한 편에는 어느새 대학생이 된 두 딸과 한창 사춘기인 막내아들, 세 자녀의 뒷바라지에 지친 아내가 자신의 따스한 시선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가족 모두에게 활력이 절실하다 느꼈지만, 함께하는 여행은 언제나처럼 어려운 상황. 때마침 동료의 추천으로 기대도 않던 휴가 선발소식을 들었을 때의 마음은 표현해서 무얼 할까.

“3년 전 장인이름이 돌아가신 후 혼자인 장모님을 생각하면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아내도 직장과 세 자녀 뒷바라지로 지쳐 있고, 특히 올해 입시로 접어든 고1 아들은 사춘기까지 겹쳐 갈등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행 한번 가면 좋겠다고 생각은 해왔지만 쉽지 않았죠. 때마침 ‘우리가족 효사랑 프로그램’에 선발돼 얼마나 기뻐는지, 아들도 마침 방학이라 모든 게 적절했죠.”

그는 자녀들과 필요 물품도 미리 쇼핑하고, 지도를 펴놓고 여행지로 선택한 태국에 대한 공부도 하면서 여행의 기대와 설렘을 키워갔다.

“출발 당일 공항에 노동조합 간부께서 나와 여행사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가족들에게 축하 인사도 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무인발권기로

미리 출국 수속도 밟는 등 곳곳에서 세심한 배려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정 내 76세인 장모님께서 무더위에 프로그램을 제대로 소화하실지 걱정도 있었는데 많이 걸지 않게끔 직원들이 신경 써 주고, 함께 간 KT가족들도 마치 알고 지낸 분들처럼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노련하고 세심한 배려로 온가족이 만족한 여행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3박5일의 방콕-파타야 여행은 뜨거운 아열대 날씨에 대한 걱정과 달리 기간이 내린 우기의 빗줄기가 오히려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도착 날 새벽, 호텔방에 놓인 과일바구니와 환영메시지는 아내를 감동시켰고, 둘째 날 KT의 밤 행사 때는 영상편지를 통해 장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소개하며 먹먹한 감동을 느끼기도 했다.



가족사랑 실천을 취지로 시행 중인 ‘우리가족 효사랑’ 휴가는 동료의 추천 후 기관선정위원회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두 명의 가족에게 여행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가족이 추가로 동행할 경우 최대 2인까지 본인부담으로 가능하다. 670명을 선발한 올해 휴가는 다낭과 하노이, 방콕, 싱가포르, 제주도 등 해외 4곳과 국내1곳 중 희망 지역과 시기를 선택해 7월 10일을 시작으로 9월 25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고조합원 가족 6명의 이번 여행은 사실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추가 동행한 두 딸만 효사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아들과 고조합원은 프로그램 일정에 맞춰 항공권과 호텔을 직접 예약해 출국과 귀국 동선을 함께 했다. 규정 상 휴가는 최대 4인 가족까지만 참여할 수 있기에 아들과는 다른 곳으로 따로 여행갈까 하다가 이왕이면 같은 곳이 좋겠다는 판단에 온라인 사이트를 뒤져 어렵게 날짜를 맞췄다. 또 혹시라도 염려되는 장모님 건강을 가까이서 살피고 싶은 마음도 컸다.

“항공 일정과 호텔만 같은 곳으로 예약하고, 저는 아들과 줄곧 따로 다녔죠. 주최 측 배려로 KT의 밤 행사와 마지막 날 밤 방콕 유람선 투어를 함께한 것 외에는요. 물론 투어 경비는 따로 지불했죠. 가족들이 파타야 산호섬에서 스노쿨링 할 때 저는 아들과 무에타이 관람하고 해변에서 수영도 하면서 보냈어요.”

노련한 가이드의 인솔로 관광지마다 발 빠른 티켓팅과 체크로 투어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여행은 가족에게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웠다. 다만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자유시간이 부족해 1시간 남짓 면세점 외에는 쇼핑할 시간이 없었던 점을 딸들이 아쉬워했다고. 또 어른들 입맛을 고려하다보니 현지식을 좀 더 경험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고조합원은 무엇보다 말도 않고 무섭게 인상만 쓰던 아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진 게 이번 여행의 큰 수확이다. 가기 싫다고 혼자 집에 있겠다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자고 먹고 먹는 동안 마음을 열고 한발씩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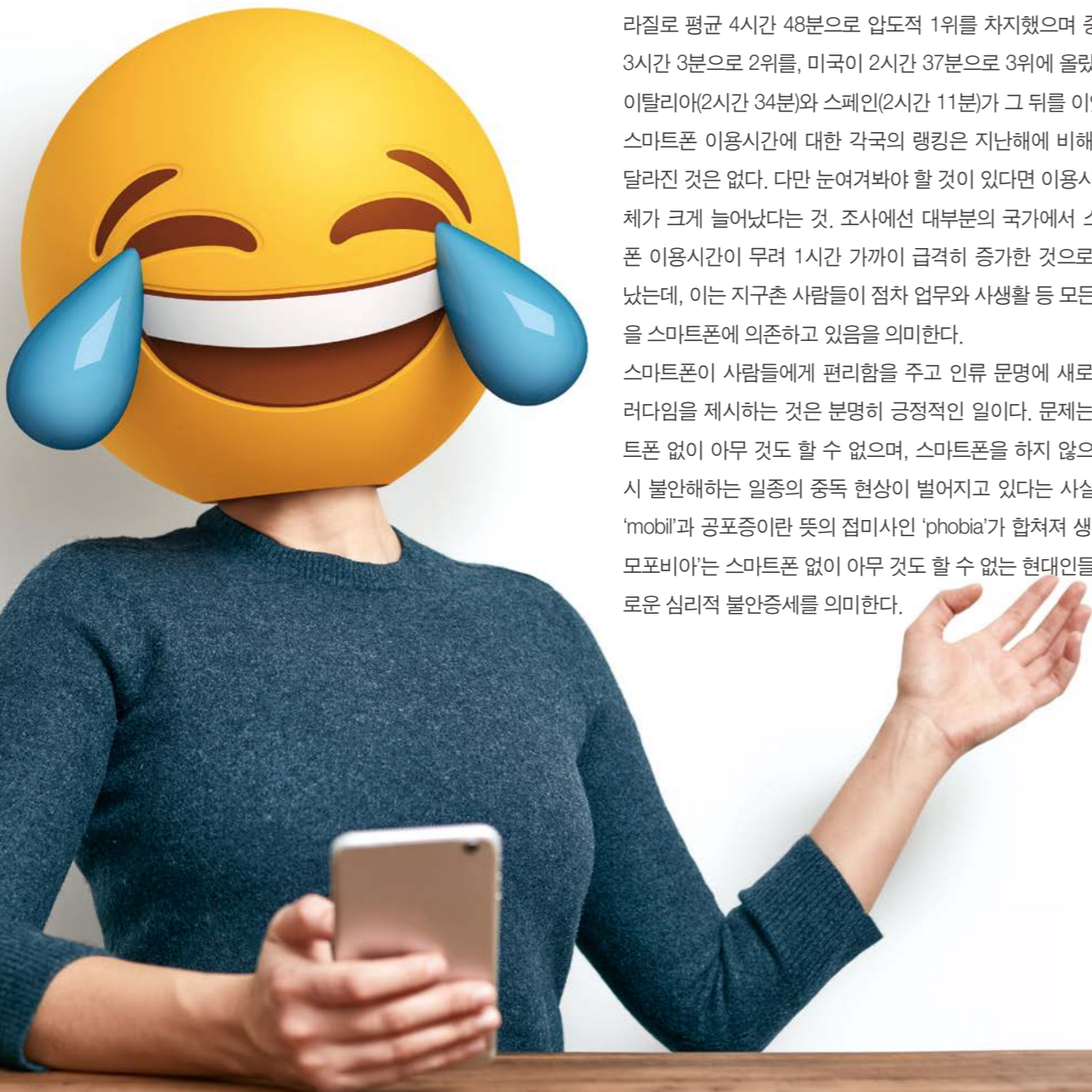
휴가 선발 소식을 듣고 아이처럼 기뻐했다는 장모님은 “사위가 좋은 회사에 다녀 가족들이 해외여행도 갈 수 있었다”고 했고, “바쁜 일상을 벗어나 친정 엄마와 좋은 추억을 만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내 또한 남편의 회사에 고마움을 전했다.

고경우 조합원은 장모님께서 아픈 데 없이 아내와 손주들과 손잡고 다니시며 사진도 찍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며 이런 기회가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벤트들이 좀 더 생겨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조합원들이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

손바닥에 갇힌 신중 증후군 노모포비아를 조심하라

스마트폰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손 안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모포비아는 디지털문명이 가져온 현대인들의 신중 심리적 증후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국인들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10분. 미국의 경제 전문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20개국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한국은 6위로 나타났다. 브라질로 평균 4시간 48분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이 3시간 3분으로 2위를, 미국이 2시간 37분으로 3위에 올랐으며, 이탈리아(2시간 34분)와 스페인(2시간 11분)가 그 뒤를 이었다.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대한 각국의 랭킹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면 이용시간 자체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 조사에선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무려 1시간 가까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구촌 사람들이 점차 업무와 사생활 등 모든 영역을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마트폰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인류 문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일이다. 문제는 스마트폰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스마트폰을 하지 않으면 몹시 불안해지는 일종의 중독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no' 'mobil'과 공포증이란 뜻의 접미사인 'phobia'가 합쳐져 생긴 '노모포비아'는 스마트폰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대인들의 새로운 심리적 불안증세를 의미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강하게 동의한다’ 7점까지 선택)

나는 과연 스마트폰 중독자일까?

- 1. 스마트폰으로 쉬지 않고 정보에 접근하지 않으면 불편한 기분이 들 것이다.
- 2.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찾고 싶는데 못하면 짜증이 날 것이다.
- 3. 스마트폰으로 뉴스(최신 사건, 날씨 등)를 접하지 못하면 불안할 것이다.
- 4. 스마트폰과 폰 기능을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으면 짜증이 날 것이다.
- 5. 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겁이 날 것이다.
- 6. 선불 요금이나 데이터가 다 떨어지거나 데이터를 다 쓰면 패닉에 빠질 것이다.
- 7. 데이터 시그널이 안 뜨거나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면, 신호가 뜨거나 와이파이기가 있는지 계속 체크할 것이다.
- 8. 스마트폰을 쓸 수 없으면 어디선가 길을 잃을까 봐 겁이 날 것이다.
- 9. 한동안 스마트폰을 체크할 수 없다면, 체크하고 싶은 욕망을 느낄 것이다.

만약 내 손에 스마트폰이 없다면?

- 10. 가족이나 친구들과 즉각 소통할 수 없어 불안할 것이다.
- 11.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게 연락할 수 없어서 걱정이 될 것이다.
- 12. 문자와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불안할 것이다.
- 13.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이 안 돼서 불안할 것이다.
- 14. 혹시 누군가 내게 연락하려 했는지 알 수 없어서 불안해 질 것이다.
- 15. 가족이나 친구들과 늘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끊어져 불안해 질 것이다.
- 16. 온라인상의 정체성과 연결이 끊어져서 불안해 질 것이다.
- 17.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네트워크를 바로바로 확인하지 못해서 불편해질 것이다.
- 18. 내 커넥션과 온라인 네트워크의 업데이트 알림을 받지 못해서 곤란해질 것이다.
- 19.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해서 불안해질 것이다.
- 20. 어찌 해야 할지 몰라 기분이 이상할 것이다.

점수해설

20점 이하 | 노모포비아 전혀 없음. 당신의 기계와 아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떨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1~60점 | 경미한 노모포비아. 어쩌다 하루 전화를 집에 두고 나오거나 와이파이 없는 곳에 있으면 잠시 안절부절 못하겠지만 불안감이 짓눌릴 정도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61~100점 | 중간 정도의 노모포비아. 기계에 상당한 애착을

보이는 당신은 길을 걷거나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일이 많고, 연결이 안 될 때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해 보인다.

101~120점 | 중증 노모포비아. 1분에 한 번꼴로 폰을 확인해야만 하는 중증단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밤에 자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일도 스마트폰 확인이다. 깨어 있는 시간 대부분을 스마트폰에 지배를 받고 있다. 심리상담이 필요한 상태.



KT 배터리 절감기술로 배터리 걱정 없이 오래오래

스마트폰을 최대 45%나 더 오래 쓸 수 있는 배터리 절감기술(C-DRX)을 KT가 국내 최초로 내놓았다. C-DRX는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을 때 통신 기능을 저전력 모드로 전환시켜 배터리 사용을 줄이는 원리다. 타사도 이와 비슷한 원리의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안정성 문제로 상용화단계에 밟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KT는 앞선 기술력을 통해 고객들에게 가장 먼저 C-DRX를 선보임으로써 국내 최고 이동통신사로서의 입지를 과시하고 있다. kt는 데이터 끊김이나 지연 등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연구와 테스트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했으며 자사가 제공하는 114개 LTE 단말기 모두 이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이미 전국 LTE 상용망에 이 기술을 적용했고 KT 이용자는 별도의 과정 없이 배터리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C-DRX

나의 달콤하고 찬란했던 여름휴가

2017 조합원 여름휴가 후기

1년에 한번 뿐인 여름휴가. 바빠 달려 온 스스로에게 '애썼다' 위로하고 다독이며
충전의 시간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떠났고, 시간은 그만큼 즐겁고 뜻깊었다.
때로는 다이내믹하고 때로는 여유로웠던 스타일 다른 세 조합원의 올 여름 휴가 이야기.

내몽골 사막화방지사업 해외연수

강북지방본부 서대문지부 CS부 Biz지원팀 • 류완철 조합원

내몽골! 온난화와 사막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곳. 산이 거의 없
어 구름 그림자가 흰하늘 보이고 비가 내리는 위치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다. 몽골 평원은 개인 땅의 구분이 없어 경계표시나 철조망이
없지만 내몽골은 중국령이라 철조망으로 구역이 정해져 있다.

내몽골 처음 찾아간 곳은 사막화 방지활동을 하는 NGO단체 예코
피스아시아(사)다. 그들은 말라버린 이곳 보사오떼호수에서 가뭄
에 강한 식물과 갈대를 심고, 방풍벽을 설치해 바람에 씨가 날아와
쌓이도록 하고 있었는데 예측불허의 날씨로 결실이 어려워 다른
방법을 연구 중이라 했다. 내외몽골에는 전체 2만2천여개의 호수
가 있었지만 3분의2가 말라버렸단다. 때문에 매년 봄이면 알칼리
성 염분이 10cm의 두께로 쌓이고 강한 바람으로 심한 황사가 발
생한다. 그리고 다량의 마른 호수에서 발생한 염분황사의 영향은
서울까지 미친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제화의 난제조차 막막하고 자본주의의 영향
으로 현지인들은 돈 벌어 성공하고픈 마음뿐이니 다른 나라에서
온 이들이 나무 심으라는 얘기가 마음에 와 닿지도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물론 꾸준한 노력이 성공하는 곳도 있지만 이 모든 상
황들과 노력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눈물이 고인다. 가장 중
요한 문제는 현지인들이 지구적 상황을 실감하고 자신들의 영토
를 잘 가꾸고자 하는 의식개혁, 바로 교육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과연 해결이 가능할까. 삼성, 구글, 애플같은 기업들의 연구와 경
쟁의 열정을 온난화 해결에 집중해서 범국가적인 노력이 함께한
다면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 일정을 마친 우리는
몽골의 민속음악을 듣고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
다. 몽골의 밤하늘은 깊은 은하수의 축제였다. 마음 따뜻한 동문들
과 여명과 평원의 노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 시간들은 잠자는 것
조차 아쉬울 정도였다. 4박5일의 잊지 못할 시간들을 새기며, 언
젠가 기회가 오면 북한의 산림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 현재의 몽골은 외몽골이며 내몽골은 1947년 중국정부에 의해 민족
자치구(네이멍구자치구)로 설치되었다.



어머니를 위한 추억 만들기

대구지방본부 서대구지부 영업1팀 • 이혜숙 조합원

이번 여름휴가는 친정어머니를 위한 여행이다. 남편과 자녀도 함께한 이번 여
행은 8월7일부터 2박3일 동안 이어졌다. 여행지는 무주다. 가족은 무주수목원
캠핑장을 거쳐 덕유산국립공원 정상을 밟고 머루와인동굴과 덕유산리조트의
여름 페스티벌 관람까지 그리고 대구로 돌아오는 길에는 옥수수밭과 송해공원
까지 알차게 둘러봤다.

캠핑장은 가족들 모두가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곳이었다. 편의시설과 시원
하고 맑은 계곡물은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듯했다. 어머니와 나
는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물장난 하며 어린 시절로 되돌아갔다. 곤돌라
를 타고 올라간 덕유산 정상에는 완만한 산책로가 있어서 어머니가 걸기에도
좋았다. 마침 무주덕유산리조트의 페스티벌이 한창이어서 흥겨운 공연이 펼쳐
졌다. 구경하던 어머니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노래를 따라 부르시고 우리
도 함께 노래하며 흥을 맞춰드리니 너무나 좋아 하셨다.

한 해가 다르게 연로하신 어머니께서는 여행을 갈 때마다 늘 마지막이라 말씀
하시곤 한다. 이번 여행도 그렇게 여기셨다. 가족과의 이번 여름이 어머니의 기
억 속에 소중하게 간직되길 바란다. 나 또한 어머니와의 이번 휴가를 잊지 못할
것 같다.



사나이들의 부산여행

부산지방본부 부산유선운용센터지부 북부산운용팀 • 정종렬 조합원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트래킹동호회 활동을 하며 여러 곳을 여행하는 나는 이번
여름 휴가 장소로 고민 없이 부산을 선택했다.

해운대에서의 오토투어는 적은 비용으로도 즐길 수 있는 럭셔리한 경험이었다. 해
운대에 있는 부산오토경기장에서는 열 명 이상 예약하면 인당 1만원에 두 시간동안
광안대교 일대를 누빌 수 있다. 돛을 펼치고 바다 위를 가르며 달리니 부산 바다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웠나 싶었다. 가슴이 탁 트였다. 투어 후 걸었던 해운대 영화
의 거리는 에너지가 넘쳤다. 영화 주인공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포토존도 많았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식당을 물색했다. 부산 여행의 최고 먹을거리는 뽕니뽕니해도
회. 우리는 저렴하고 푸짐하기로 소문난 횡집 원양호에서 싱싱한 회를 앞에 두고 잔
을 부딪쳤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 좋고 친구와 함께 라서 더 흐뭇한 사나이들의 밤
이 흘러가고 있었다.

여행은 늘 좋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보고 재충전의 시간이 된다. KT
조합원들도 업무에 지쳐 바쁜 중에도 휴가를 잘 이용해 건강을 챙긴다면 멋진 직장
생활을 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모두 파이팅!



어디선가 들려온 음악소리에 위로 받은 적 있나요?

음악이 주는 위로와 치유의 힘

〈비긴 어게인〉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연기다. 이소라, 윤도현, 유희열 세 명의 뮤지션과 노홍철이 함께 떠나는 버스킹 여행을 담았다. 국내에선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인기 뮤지션이지만 해외에서는 그저 무명의 뮤지션과 다름없다. 아일랜드의 더블린과 골웨이, 국 맨체스터와 리버풀, 한적한 소도시에서 변화한 대도시까지. 낯선 나라, 낯선 거리를 돌며 버스킹을 펼친다. 때로는 무관심과 호기심에 노출된 채,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마치 처음처럼 노래한다.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을 배제하고 오직 음악으로 표현하는 그들의 진심이, 과연 '낯선 문화와 언어의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할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음악은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음악의 울림은 사람의 마음을 연다. 음악에 귀 기울이더라도 호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잔잔한 감동과 위로를 선사한다. 만국 공통의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음악일 것이다.



음악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나

음악은 인간의 감각을 자극한다. 다큐멘터리 〈그 노래를 기억하세요〉에서 이러한 음악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치매 등 인지장애를 겪는 노인들이 젊은 시절 즐겨듣던 음악을 들은 후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과정을 담았다. 동시에 미국 노인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과도한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음악 요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이 전혀 기억나지 않던 90살의 할머니는 어릴 때 즐겨듣던 루이 암스트롱의 음악을 듣고 바로 학창 시절을 떠올렸다. 어머니 몰래 루이 암스트롱의 공연에 갔던 일부터 청춘을 보냈던 장소, 직장, 자신의 생년월일과 아들의 생년월일까지 또렷이 기억해 냈다. 온종일 고개를 떨군 채 앉아만 있는 헨리 할아버지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치매환자다. 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이름도 잊었다. 하지만 젊은 시절 즐겨듣던 음악을 들려주자 열정적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표정과 몸짓에 생기가 돌았다. 그 시절을 회상하며 음악에 관해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총기를 되찾았다. 기억과 언어는 물론 감정마저 잃고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던 노인들의 변화는 놀라웠다. 세상과 단절된 채 요양원에서 무기력한 생을 이어가던 그들에게 음악은 생기를 불어넣고 정체성을 되찾게 해주며 동시에 가능성을 일깨워 주었다.

인간에게는 왜 음악이 필요한가

음악은 우리 몸 구석구석을 자극한다. 특히 뇌조직을 다양하게 활성화 시킨다. 귀를 통해 들어온 음악은 뇌의 청각 역을 자극해 음을 지각하고 해마에서 과거의 음악적 경험을 불러 일으키며, 전두엽에서 기대감이 생성된다. 예측에 따라 익숙하게 들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며 깊은 안정감을 준다. 치매 노인들이 심신의 활력과 안정을 되찾은 이유다. 22일된 수정란에서 세포 하나가 깨어난다. 최초의 박동이다. 곧이

어 모든 세포들이 한 박자로 고동치기 시작한다. 고동치는 세포들은 분열을 거듭해 마침내 심장이 된다. 박자에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세포에 새겨진 감각인지도 모른다. 태아는 대뇌피질을 통해 엄마가 말하는 패턴을 학습하고 그 패턴에 따라 울음 소리를 낸다. 음악은 이렇게 언어에 앞서 인간의 본질에 닿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 속에 산다. 거리에서, 카페에서, TV에서도 매순간 음악과 함께 한다. 그리고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음악을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LP에서 카세트로, 다시 CD를 거쳐 mp3로. 음악을 듣는 방식은 꾸준히 변화했다. 지금은 음원 서비스 시대다. 지니 뮤직은 국내 음악서비스업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의 인공지능 음성명령 기능 '지니보이스'를 탄생시켰다. 지니뮤직의 음성명령 분석기술과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음악 추천 엔진이 결합됐다. "TOP 100차트 틀어 줘", "90년대 음악 추천 해줘" 등 이용자의 다양한 음성명령을 인식해 음악을 재생한다. 사용자의 상황과 감성을 고려해 음악을 추천하는 인공지능 DJ 역할도 수행한다. 언제 어디서든 내 취향과 감성, 기분에 맞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음악은 시대와 삶을 압축한다

젊은 시절 들던 음악이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다. 감성이 풍부하고 원기가 왕성한 시기에 즐겨 들던 음악은 우리 내면에 새겨진다. 누군가는 여전히 김광석을, 유재하를, 이문세를 듣는다. 7080 음악을 떠올리고 90년대 음악을 그리워한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지금도 '돌아가는 삼각지', '동백아가씨'를 부른다. 시간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흐른다. 흐르는 시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음악이다. 음악은 시간이 흐르는 소리인 셈이다. 우리는 그 시간을 산다. 음악이 흐를 때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된다. 규칙적인 시간이 음악의 시간이 되어 삶을 압축할 때, 우리는 음악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 위로를 얻는다.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리라

계획 없이 목적 없이 흘러가기 좋은 곳, 라오스

노자가 그랬다. '좋은 여행자에게는 고정된 계획이 없으며 도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빨리 빨리 인증샷 찍고 돌아오는 행위를 넘어, 내가 있던 자리를 떠나 내가 있던 자리를 응시하게 되는 과정이 여행이라면, 라오스는 그러한 여정에 제법 어울리는 장소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라던지,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라는 도식적이고 기망적인 표현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무위(無爲)의 자유를 누리기에 라오스는 여전히 좋은 곳이다.



Travel Tip

대한항공, 라오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한국에서 라오스 수도인 비엔티엔까지 가는 직항이 다수 있다. 북부의 주요 관광지인 '루앙프라방', 또는 남부의 주요 관광지로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도시, '팍세'를 라오스 국내선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국내 항공권 사이트에서 라오스 국내선 비행기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루앙프라방_탁발 행렬



느긋하고 평화로운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루앙프라방

수년 전 방영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여파로 한국인 여행자들은 주로 비엔티엔(수도) - 방비엥 - 루앙프라방 루트인 라오스 북부로 몰리는 경향이 생겼다. 특히 방비엥은 수도인 비엔티엔에서 가깝고(버스 3시간~3시간 반 소요) 투어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 흡사 강촌이나 가평이라도 온 듯 한국인 천지가 됐다. 이 번잡스러움이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면 비엔티엔에서 루앙프라방으로 바로 이동해도 좋을 듯 하다. 비엔티엔에서 루앙프라방까지는 버스로 9시간, 국내선 비행기로 40분 정도가 소요되며 한국에서 루앙프라방 직항도 운행된다. 루앙프라방은 황금색 지붕의 전통양식 건물과 프랑스 풍의 이국적인 건물이 가득한 곳으로 4만 명이 사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관광객이 몰리는 곳 답지 않게, 유흥문화도 발달하지 않았다. 그저 느긋하게 비어 라오(Beer Lao)한 잔 앞에 놓고 풍경을 바라보아도 좋을 만큼 평온하고 유서 깊은 곳이다. 루앙프라방을 무엇보다 빛나게 하는 모습은 매일 이른 아침 6시부터 이루어지는 탁발 행렬이다. 루앙프라방의 하루가 승려들의 탁발보시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 승려들이 공양 바구니를 들고 한 줄로 걸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 공양바구니 안에 떡이나 과일, 밥과 반찬

등을 넣는다. 여행자에게는 이국의 특이한 체험 정도로 치부될지 몰라도 현지인에게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이자 경건한 공동체 의식이다. 스님들은 공양 받은 음식을 어려운 꼬마 아이들이나 거리의 부랑자에게 다시 나누어 주고, 남은 음식이 있을 경우 현지인들이 길거리의 동물들에게 먹여주기도 한다. 선하게 살고자 하는 루앙프라방 사람들의 오랜 삶의 방식인 것이다. 여행자 역시 현지인들처럼 보시에 참여할 수 있다. 노파심에서 시죽을 붙이려면 간혹 단체 여행객들이 가이드가 나눠준 찰밥을 맨손으로 뜯어 공양바구니에 넣어주며 요란하게 사진을 찍고 떠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용하고 엄숙한 탁발 보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임을 유념하자. 선한 의지로 경건하게 이루어지는 행렬에 진정성을 갖고 참여하고 싶다면, 주걱을 따로 사서 밥을 넣어드리고 아니면 그릇 통째로(현지에서 판매) 보시하도록 하자. 현지에선 보기 힘든 한국의 과자나 간식거리를 준비해가도 좋다.

Tip 일정에 쫓길 필요 없이 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현지인처럼 느릿느릿 게으르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자유 여행의 장점이다. 루앙프라방에 가면 특색 있는 카페에서 망중한을 즐기는 것도 좋을 터. 맛도, 분위기도 좋은 카페 두 곳을 추천한다.

1 유토피아(Utopia)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현지에서 가면 다들 친절하게 알려준다. 강변을 바라보는 절벽 위에 오픈된 야외 바 형태로 만들어진 카페이며 음료 및 주류, 식사 등을 판매한다. 마치 숲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조경이 잘 꾸며져 있는데다 좌식 테이블석은 물론 누워서 오수를 즐길 수 있는 자리도 있어 인기가 많다. 등받이가 있는 폭신한 쿠션에 누워 강바람을 맞으며 음악도 듣고 맥주도 한 잔 마시다 보면, 이 카페의 이름이 왜 유토피아인지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된다.

2. 조마 베이커리(Joma bakery café)

루앙프라방의 메인거리이자 여행자 거리에 있어 못 찾을래야 못 찾을 수 없다. 아기자기한 루앙프라방의 거리를 다니다, 에이컨이 나오는 시원한 곳에서 여유를 갖고 싶을 때 많이들 찾는다. 라오스에는 흔하지 않는 아메리카노는 물론 맛난 빵과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여행자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준다.



세계 3대 아라비카 커피의 산지, 블라벤 고원

라오스 남부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북부 보다 여행자가 적지만 북부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굳이 구분하자면 편리한 여행인프라와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원한다면 북부 여행을, 복잡한 문명사회를 떠나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고즈넉한 자연풍광 속에서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여행자라면 남부 여행이 더 좋을 수 있겠다. 라오스 남부를 여행하려면 일단 팍세라는 중심 도시를 거쳐야 한다. 한국에선 비엔티엔 입국 후 국내선 비행기로 이동하면 된다(버스로는 12시간 소요) 천혜의 커피 재배 조건을 갖춘 블라벤 고원은 고급 아라비카의 산지다. 블라벤 고원을 여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오전 8시에 팍세에서 출발하는 블라벤 투어를 신청하면 된다. 블라벤 투어는 커피 농장과 남부의 멋진 자연경관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운전자가 딸린 벤을 타고 다니며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볼 수 있다. 서정적인 자연풍광과 길고 넓고 크고 작은 폭포들, 유서 깊은 문화 유산을 경험하기 좋은 장소다.

Tip 팍세에 머무르는 여행자라면 두 가지 투어 상품을 즐길 수 있다. 블라벤 고원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벤을 타고 다니는 블라벤 투어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참파삭(champasak)을 방문하는 왓푸 사원 투어가 있다. 라오스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이 둘 있는데, 하나는 북부의 루앙프라방이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참파삭 주에 있는 왓푸 사원이다. 왓푸(Vat phou)는 2001년에 지정된 크메르 유적으로 캄보디아의 앙코르 왓 보다 300년 전에 건립됐다고 한다. 초기에는 힌두 사원이었다가 15세기에 시암족이 불교를 전파하면서 불교사원이 됐다. 17세기의 대지진으로 상당한 피해가 생겼지만, 앙코르왓 보다 더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크메르 왕국의 시초라고 하여 주변 불교 국가에서 성지처럼 순례를 오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는 힌두교와 불교가 혼재된 모습을 하고 있다.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4천개의 섬, 시판돈

일몰이 아름다운 시판돈은 라오어로 '4000개의 섬'이라는 뜻이다. 동남아 최대 강인 메콩강 하류, 캄보디아-라오스 접경에 있는 도시로 메콩강 수량에 따라 4천 개의 섬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기에 붙은 이름이다. 시판돈의 입구, 반나카상 선착장에서 배를 타면 각각의 섬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여행자가 드나들만한 곳은 가장 큰 섬인 돈뎛·돈콘·돈콩 섬이다. (현재는 다리가 신설되어 내륙에서 보트를 타지 않고도 돈콩 섬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돈뎛과 돈콘은 다리로 연결돼 있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걸어서도 갈 수 있다. 자전거 대여료는 하루에 1만킵(약 1500원) 정도. 참고로 돈뎛은 주로 가난한 배낭여행자가, 돈콘은 숙소 질 좀 따지는 자유여행자가 주로 등지를 튼다. 시판돈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평식 폭포인 콘파팽 폭포 (우기에는 폭포인지 강인지 구분 안될 만큼 빠른 유속과 풍부한 물량을 볼 수 있다), 민물 돌고래, 태고의 밀림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섬 내의 여행사나 숙소에서 작은 배를 빌려 튜빙이나 카약킹을 할 수도 있다.

Tip 팍세에서 출발하는 미니벤이 돈콩섬 마을로 가는 입구에 세워준다.(팍세에서 3~4시간 소요) 입구에는 썩태우가 대기하고 있어 일정 정도 손님이 차면 돈콩섬으로 이동한다. 관광객이 많지 않은 남부는 영어가 특히 통하지 않으므로 되도록이면 가이드북을 들고 가 길을 물을 때 사진을 보여주도록 하자.

- 1. 루앙프라방_ 왕궁박물관 2. 블라벤 고원_ 커피농장
- 3. 시판돈 4. 시판돈_ 콘파팽 폭포



Voices of Readers

고객의소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새희망의 '길']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새희망의 '길']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퀴즈 정답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평택지부 영업기획팀 김성기

소식지를 통해 항상 노조 및 우리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열혈 독자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얻을 수 있는 복지혜택 중 '대부제도'에 대해 카툰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긴급가계자금을 신청할까 고민하는 조합원에게 좋은 정보가 제공된 것 같아 무척 유익했습니다. 또한 소식지에서 추천해주신 맛과 맛이 공존하는 태국, 방문 후에 멋진 휴가를 보내볼까 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빠른 정보로 조합원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강남고객본부지부 사업지원부 이명재

여름시즌에 맞춰 전국하계휴양소에 대해 한번도 볼 수 있도록 나와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C부문 전기차 도입 관련 추진 배경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기차는 이산화탄소 감축과 연료비 절감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의 공급 기대됩니다.

본산지부 경제경영연구소 김현중

현장 24시를 통해 불철주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직원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덕분에 저도 신입사원 시절 정마철에 분기 국사 지원 나갔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당시 폭우 속에 분기 국사의 침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선배님의 모습 속에서 KT인의 열정과 끈기를 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정마철에도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업무에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본산지부 경제경영연구소 이호현

입사하고 처음으로 읽은 '새 희망의 길'에서 마음 따뜻한 뉴스와 KT 관련/비관련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직 회사의 복지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시기라서 만화로 풀어낸 복지관련 분야를 재밌게 보았습니다. 올 상반기에 입사한 KT의 신입/경력사원들을 위해 KT에서 회사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Tip들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동부유선운용센터지부 강재구

묵은 된장이 맛있다고 합니다. 역시 선배님들의 연륜과 삶이 고스란히 묻

어나는 한마디 한마디 작업현장의 어려움과 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노하우 등 선배님들의 삶이 바로 KT의 뼈대요, 최고의 통신기업 KT를 위하여 기반을 다져오신 선배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후배가 되겠다고 다짐 해봅니다.

강남고객본부지부 S&P팀 송정석

요즘 반려동물과 같이 외로움을 달래는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려동물과 공존하기 위한 방법과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 등 실제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한 판매전략으로 기기IoT 홈캠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서부고객본부지부 사업지원부 정아름

'길'을 통해 KT의 2017년 노동시장에 대해서 발 빠르게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향상에 집중해주신다고 하니 더욱더 기대 되는 바입니다. 특히 복지실현에 있어孝-day라던지 휴향시설 확대는 호도하고 싶은 KT임직원들에게 꿀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유익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울산지부 CS부 장철호

반려동물과 잘 살아가기 칼럼이 인상 깊었습니다. 인간과 자연과 동물의 관계가 별개의 관계가 아니고 함께 공존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사람의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유·무선사업본부 김준우

회사의 대부제도에 관해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 관심을 놓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만화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밖에도 반려견 공금사항, 여행지 정보, 추천할 도서 등등 상업성과 관련없는 순수한 청정 정보들로 가득차 있어서 눈과 머리가 힐링이 되네요. 매번 좋은 소식들로 변함없이 꾸려지길 기대합니다.

광화문지부 영업부 조옥경

중양노사협의회 협의의 의결사항등이 잘 정리되어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노동조합에서의 활동내용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직원들에게 필요한 대부제도를 만화로 정리하여 재미 있고 이해하기 쉽게 보았습니다. 좋은 도서 소개와 다양한 관광지도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모든 정답은 이달 소식지 안에 있어요~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 mabin@kt.com (김민수 편집국장)

가로 1 조합원의 가족사랑 프로그램으로 효도를 통한 가족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 명은? (22페이지 참고)

세로 1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을때 통신 기능을 저전력 모드로 전환시켜 스마트폰을 더 오래 쓸 수 있는 C-DRX 기술은? (25페이지 참고)

세로 2 상생의 노사 문화와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기업간 노사협의체인 UCC의 봉사단체 명칭은? (10페이지 참고)

KTTU QUIZ

			세로2			
세로1						
가로1						

※ 보내주실 때 퀴즈 가로 세로를 모두 적어 주시고,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다운플랜, 그 숨길수 없는 가치

(주)다운플랜은 KT노동조합에서 고품격 장례/웨딩서비스를 약속하는 경조사브랜드입니다. 고객님의 하나가 되는 서비스를 통해 경조사 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다운플랜의 차별성

상조 1구좌가 다 똑같은 구좌가 아닙니다. 정직한 상조회사 끝까지 고수하겠습니다. KT그룹 임직원과 하나가 되는 서비스를 통해 상조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 상조회비 100% 금융기관에 적립!
상조회비 원금 모두가 보존되는 상조회사는 전국 5%도 되지 않습니다.
- 운영비는 최소화, 서비스 비용은 최고!
일반 상조회사는 상품금액의 30% 이상이 운영비로 다운플랜은 상품금액의 5% 내외가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 장례식장에서 바가지/추가요금은 근절, 음식비/사용료 등 비용 절감은 최고!
- 다운플랜 전화 한 통화로 전국 800여개 웨딩홀을 한번에 checking!
- 철저한 감시시스템 가동으로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

KT임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